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조영재 • 조은정*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 Focused in Chungnam Province -

Cho, Young-Jae • Cho, Eun-Jung*

Dept. of Rural & Agricultural Research,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Rural and Bio-systems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required for policies on return to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through analysing the actual state of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ople returning toward general village and sub-urban residential complex in rural has been done to figure out the settlement environment. And the status analysis targeting the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original residents who live in general village have been done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community. As a result, people returning toward sub-urban residential complex in rural moved for something else, while people returning toward general village in rural moved with the purpose of farming. Like this, the aims of moving into rural areas show difference. There is little conflict between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original residents, but some people have an intention to move the other place due to the conflict with original residents. So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is needed for the active responses and suitable adaptation of them. On the basis of this study, policy tasks for return to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were suggested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each policy on return for farming and something else to rural areas discriminatively. 2) The economic support for a stable settlement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the programs activating community with original residents are required. The discussion about the new community 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the increase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Key words :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Settlement Environment, Rural Community Revitalization, Chungnam Province

I. 서 론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다가 90년대 후반 IMF사태를 정점으로 도시로 몰리던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점점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된 결과, 최근 연구(농촌경제연구원, 2011)에서도 분석되었던 바와 같이 상당수의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명 ‘귀농·귀촌 사전유치전략’과 함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사후관리전략’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나 정책적 관심은 주로 ‘귀농·귀촌 사전유치전략’이 중심이 되어 진행(김정섭, 2009; 강대구, 2010; 남인현 등, 2011; 이민수 등, 2012)되어 왔고, 지자체의 관심도 귀농·귀촌 인구유치에 관심이 있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Jae

Tel : 041-840-1202

E-mail : choyj@cdi.re.kr

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귀농·귀촌 사후관리전략’이 중심이 되어 이상호(2008), 황정임 등(2011), 오수호(2012), 최윤지 등(2012), 홍성효 등(2012), 임춘희(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귀농·귀촌인이 이주후 실제 적응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이고,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이 조사·분석되었고, 특히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는 대부분 표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거나 단순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만이 진행되었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귀농·귀촌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실제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과 커뮤니티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귀농·귀촌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농촌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의 이주현황 및 주거환경, 경제활동, 커뮤니티 활동 및 각각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 중 이주현황 및 주거환경, 경제활동은 조영재 등(2012)이 연구한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의 현황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이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최근까지 귀농·귀촌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귀농·귀촌의 영향요인 및 발생 행태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둘째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첫째, 귀농·귀촌의 영향요인 및 행태분석과 관련된 연구로서 남인현 등(2011)은 직장인의 내적개인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이라는 측면에서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도출하였고, 이민수 등(2012)은 귀농·귀촌자의 동기, 태도, 형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자를 귀농·귀촌동기에 따라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의 4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홍성효 등(2012)은 조금 더 나아가 진안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귀농·귀촌의 특성과 귀농·귀촌 기간에 대한 지속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귀농·귀촌정책 과제제시와 관련된 연구로서 김정섭(2009)은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견지해야 할 관점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강대구(2010)는 전자의 연구와는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실제 귀농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과제들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유치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귀농·귀촌 사전유치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사전유치전략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그동안 귀농·귀촌 했던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착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사후관리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박공주 등(2006)은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귀농자의 현재 건강상태, 영농교육 및 자금 마련의 정도, 그리고 이웃주민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많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황정임 등(2011)도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귀농·귀촌 준비 기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동기, 다른 활동과의 병행 형태, 활동 계속 의향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나 농촌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춘희(2012)가 비은퇴자 귀농가족의 가족 강점과 귀농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후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 경제적인 적응, 대인관계, 지역사회 생활의 적응을 위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력하면서 귀농·귀촌생활에 만족하며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윤지 등(2012)이 도시 이주민의 농촌 지역커뮤니티 적응 실태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결과에서처럼 귀농·귀촌인들은 마을 공동체에 참여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식생활 측면이나 영농기술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내에서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반면, 갈등발생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과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는 대부분 표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거나 단순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만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정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주실태에 따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현황, 주거환경, 경제활동의 현황에 있어서 조영재 등(2012)의 연구에서 조사된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과의 실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동시에 귀농·귀촌인이 원주민과 어떠한 커뮤니티의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어떠한 인식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각 주체의 커뮤니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지에 있어 일반마을은 서천군귀농인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 대상마을 중 총 89개 행정리를 선정하였고, 귀농·귀촌인은 전수조사, 일반주민은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자 1명(일부 2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전원주거단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상세 현황은 Table 3과 같다.

III. 조사개요 및 분석틀

1. 조사대상지 개요

조사대상지는 모집단의 대표성, 자료구득의 용이성, 연구진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귀농·귀촌 관련 조직의 운영이 비교적 활발한 서천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천군은 현재 귀농인협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대전·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귀농·귀촌인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적인 귀농·귀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단,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영재 등(2012)의 연구에서 대상이 되었던 충남의 전원주거단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과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Table 1 조사대상지 현황

구분	마을명	위치	개수
일반 마을	신창1리	서천군 장항읍	1
	덕암1리 외 12개 마을	서천군 마서면	13
	은곡리 외 4개 마을	서천군 화양면	5
	화산1리 외 5개 마을	서천군 기산면	6
	온동리 외 4개 마을	서천군 한산면	5
	신봉리 외 7개 마을	서천군 마산면	8
	후암리 외 10개 마을	서천군 시조면	11
	은곡리 외 13개 마을	서천군 문산면	14
	현암3리 외 10개 마을	서천군 판교면	11
	산천1리 외 6개 마을	서천군 중천면	7
	칠지1리 외 3개 마을	서천군 비인면	4
	신합리 외 3개 마을	서천군 서면	4
	전원 주거 단지*	산동지구	금산군 남일면
등고지구		서천군 판교면	1
작천지구		청양군 대치면	1
지정지구		홍성군 장곡면	1
대동지구		예산군 덕산면	1
기로전원단지		천안시 입장면	1
신유리전원주택마을		아산시 도고면	1
갈산리전원주택단지		당진군 순성면	1
청벽전원마을		공주시 장기면	1
황룡전원마을		논산시 연산면	1

Table 2 조사대상자 분포

구분	마을명	일반주민	귀농·귀촌인
일반 마을	계	92(100.0)	250(100.0)
	신창1리	1(1.1)	1(0.4)
	덕암1리 외 12개 마을	12(13.0)	29(11.6)
	은곡리 외 4개 마을	5(5.4)	11(4.4)
	화산1리 외 5개 마을	6(6.5)	19(7.6)
	온동리 외 4개 마을	5(5.4)	15(6.0)
	신봉리 외 7개 마을	11(12.0)	36(14.4)
	후암리 외 10개 마을	10(10.9)	21(8.4)
	은곡리 외 13개 마을	15(16.3)	65(26.0)
	현암3리 외 10개 마을	12(13.0)	18(7.2)
	산천1리 외 6개 마을	7(7.6)	12(4.8)
	칠지1리 외 3개 마을	4(4.3)	10(4.0)
	신합리 외 3개 마을	4(4.3)	13(5.2)
전원 주거 단지	계	-	200(100.0)
	산동지구	-	10(5.0)
	등고지구	-	33(16.5)
	작천지구	-	11(5.5)
	지정지구	-	12(6.0)
	대동지구	-	10(5.0)
	기로전원단지	-	40(20.0)
	신유리전원주택마을	-	17(8.5)
	갈산리전원주택단지	-	22(11.0)
	청벽전원마을	-	30(15.0)
황룡전원마을	-	15(7.5)	

조사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일반마을의 일반주민은 60대 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은 4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전원주거단지의 조사대상자는 젊은 층이 비교적 많고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직업에 있어서는 일반마을의 일반주민은 모든 대상자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귀농·귀촌인은 농수축산업 74.0% 이외에 회사원, 자영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원주거단지는 농수축산업 종사자 비율이 2.0%에 불과해 일반마을로의 이주는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하고,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는 주로 귀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일반마을의 일반주민 중 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3.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일반마을의 귀농·귀촌인은 18.8%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원주거단지 입주민 54.0%로 일반마을에 비해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Table 3 조사대상자 상세현황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일반주민	귀농·귀촌인	
전체		92(100.0)	250(100.0)	200(100.0)
성별	남자	89(96.7)	212(84.8)	123(61.5)
	여자	3(3.3)	38(15.2)	77(38.5)
연령	31-40세	0(0.0)	6(2.4)	25(12.5)
	41-50세	3(3.3)	37(15.0)	38(19.0)
	51-60세	28(30.4)	99(40.2)	70(35.0)
	61-70세	47(51.1)	84(34.1)	67(33.5)
	71세 이상	14(15.2)	20(8.1)	0(0.0)
직업	농수축산업	92(100.0)	185(74.0)	4(2.0)
	회사원	0(0.0)	11(4.4)	24(12.0)
	자영업	0(0.0)	17(6.8)	24(12.0)
	공무원	0(0.0)	0(0.0)	28(14.0)
	전원주부	0(0.0)	3(1.2)	39(19.5)
	자유업	0(0.0)	2(0.8)	5(2.5)
	무직	0(0.0)	31(12.4)	75(37.5)
	기타	0(0.0)	1(0.4)	1(0.5)
학력	중졸 이하	25(27.2)	41(16.4)	4(2.0)
	고졸	64(69.6)	162(64.8)	88(44.0)
	대졸	3(3.3)	44(17.6)	92(46.0)
	대학원졸이상	0(0.0)	3(1.2)	16(8.0)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과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마을에 있어 귀농·귀촌인과 일반주민의 커뮤니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Table 4 조사 및 분석방법

구분	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분석방법
		항목	세부내용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① 서천군 일반마을 귀농·귀촌인	이주현황	- 이주 배경 및 마을선정 요인 - 이주 준비시 및 정착시 어려움	- 현장 방문에 의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 전원주거단지는 조영재 등(2012)의 연구결과 자료 활용	빈도분석 t 검정 χ^2 검정 분산분석 (SPSS)
		주거환경	- 거주주택(거주자수, 거주형태, 거주유형, 前 거주지 등) - 주거환경 만족도(5점 척도)		
	② 충남 전원주거단지 귀농·귀촌인	경제활동	- 경제활동(이직현황, 직장소재지, 주 소득원) - 소비활동(생활용품 구입처, 문화소비 지역) - 경제적 활동의 만족도(5점 척도)		
일반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실태	① 서천군 일반마을 일반주민	커뮤니티 활동	- 커뮤니티 현황(일반주민과의 관계 및 관계변화, 마을내 교류활동, 정착시 어려움 및 도움을 주었던 사람) -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마을내 역할, 노력의지) -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식	- 현장 방문에 의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커뮤니티 의식	-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마을주민 태도, 농촌 지역의 영향) - 커뮤니티 변화에 대한 수용의식		
	② 서천군 일반마을 귀농·귀촌인	커뮤니티 만족도	-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5점 척도)		

조사·분석틀은 조영재 등(2012)의 연구틀을 준용하여 농촌마을을 구성하는 3가지 구성요소인 삶터, 일터, 쉼터를 기준으로, 이주의 일반현황과 주거환경, 경제활동, 커뮤니티 관련항목으로 큰 틀을 구성하고, 각각의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주현황으로는 이주에서 정착까지의 배경과 애로사항을, 주거환경으로는 실제 거주주택의 현황을, 경제활동으로는 직업 및 소비활동을, 커뮤니티활동으로는 실제 마을주민과의 커뮤니티 현황과 귀농·귀촌에 대한 의식 등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주거환경, 경제활동, 커뮤니티 활동의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성하였다.

먼저,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마을은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 등록된 귀농·귀촌인 2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 동안 마을방문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 정주현황은 조영재 등(2012)의 연구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주로 이주배경 및 마을선정 요인, 이주시 및 현재생활에서 어려운 점, 귀농·귀촌인의 거주주택 현황, 주거환경 만족도,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 현황, 경제적 활동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서천군의 귀농·귀촌인 250명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의 일반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역시 2013년 8월 23일에서 9월 6일까지 15일 동안 마을방문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커뮤니티 실태 조사에 전원주거단지를 제외한 것은 전원주거단지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신규 조성된 마을로 일반주민과의 커뮤니

티 자체가 없는 마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은 주로 마을내 주민과의 관계 및 관계변화,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 이주의향,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민의 태도 및 요구사항, 커뮤니티 변화에 대한 인식, 교류활동 및 커뮤니티활동의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각각의 집단(일반마을 귀농·귀촌인 - 전원주거단지 귀농·귀촌인, 일반마을의 일반주민 -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도분석과 t-검정, χ^2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의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v.19.0을 활용하였다.

IV.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

1. 이주현황

귀농·귀촌인의 이주배경을 살펴보면 일반마을의 경우 귀농(49.6%), 전원주거단지의 경우는 귀촌(32.6%)이 가장 큰 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건강관리, 여가휴양, 자아실현 등의 순서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귀농·귀촌 준비시 마을선정의 요인으로는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 모두 자연경관(43.3%)을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는 주거환경(30.0%), 접근성(10.6%)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Table 5 귀농·귀촌인의 이주배경 및 마을선정 요인

구분	항목	계	일반마을	전원 주거단지	χ^2 (p-value)
이주배경*	계	790(100.0)	373(100.0)	417(100.0)	257.740 (0.000***)
	귀농	193(24.4)	185(49.6)	8(1.9)	
	귀촌	213(27.0)	77(20.6)	136(32.6)	
	여가휴양	116(14.7)	46(12.3)	70(16.8)	
	건강관리	146(18.5)	43(11.5)	103(24.7)	
	투자	42(5.3)	9(2.4)	33(7.9)	
	자아실현	78(9.9)	12(3.2)	66(15.8)	
	기타	2(0.3)	1(0.3)	1(0.2)	
마을선정 요인*	합계	953(100.0)	486(100.0)	467(100.0)	51.109 (0.000***)
	자연경관	413(43.3)	214(44.0)	199(42.6)	
	주거환경	286(30.0)	130(26.7)	156(33.4)	
	접근성	101(10.6)	50(10.3)	51(10.9)	
	안전·편의	50(5.2)	35(7.2)	15(3.2)	
	커뮤니티	30(3.1)	5(1.0)	25(5.4)	
	교육여건	4(0.4)	4(0.8)	0(0.0)	
	경제여건	26(2.7)	24(4.9)	2(0.4)	
	투자가치	35(3.7)	17(3.5)	18(3.9)	
	고향이라서 낮은 지가	7(0.7) 1(0.1)	6(1.2) 1(0.2)	1(0.2) 0(0.0)	

* 복수응답 문항 /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귀농·귀촌 준비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역시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가 유사한 답변을 보였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써는 정보부족(33.1%)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원생활의 경험부족(27.7%), 가족합의(15.2%) 및 자금마련(14.6%) 등을 어려웠었던 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의 경우 보건의료(27.9%), 문화활동(24.0%)을,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편의성(24.3%), 문화활동(23.0%)을 정착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한 일반마을은 열악한 서비스기반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부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귀촌을 목적으로 이주한 전원주거단지는 열악한 주변 생활환경으로 인한 편의성의 부족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귀농·귀촌인의 이주 준비시 및 정착시 어려움

구분	항목	계	일반마을	전원 주거단지	χ^2 (p-value)
이주 준비 시 어 려 움 *	합계	840(100.0)	442(100.0)	398(100.0)	77.682 (0.000***)
	정보부족	278(33.1)	141(31.9)	137(34.4)	
	자금마련	123(14.6)	76(17.2)	47(11.8)	
	가족합의	128(15.2)	52(11.8)	76(19.1)	
	토지확보	43(5.1)	42(9.5)	1(0.3)	
	주택확보	35(4.2)	32(7.2)	3(0.8)	
	전원생활 경험부족	233(27.7)	99(22.4)	134(33.7)	
정 착 시 불 편 한 점 *	합계	1182(100.0)	656(100.0)	526(100.0)	100.522 (0.000***)
	안전	99(8.4)	36(5.5)	63(12.0)	
	보건의료	301(25.5)	183(27.9)	118(22.4)	
	교육	36(3.0)	23(3.5)	13(2.5)	
	문화활동	283(23.9)	162(24.7)	121(23.0)	
	정주성	16(1.4)	8(1.2)	8(1.5)	
	쾌적성	30(2.5)	27(4.1)	3(0.6)	
	편의성	257(21.7)	129(19.7)	128(24.3)	
	접근성	88(7.4)	29(4.4)	59(11.2)	
	커뮤니티	11(0.9)	2(0.3)	9(1.7)	
경제활동	60(5.1)	57(8.7)	3(0.6)		
기타	1(0.1)	0(0.0)	1(0.2)		

* 복수응답 문항 /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2. 주거환경 현황 및 만족도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거주자수, 거주형태, 거주유형, 前거주지에 관하여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우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는 일반마을의 경우 주로 1인~2인(86.4%)인 반면 전원주거단지는 2인(63.5%)이 가장 많고 3인~4인(36.0%)의 세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귀농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마을 이주자들은 단신 또는 부부 세대가 많고, 귀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원주거단지는 부부세대 또는 노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은 자가(72.4%) 및 전세(23.6%)로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전원주거단지는 대부분의 자가 주택(97.5%)에 거주하고 있어 일반마을로의 이주자가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에 비해 주택의 확보의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주유형은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 모두 대다수가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원주거단지의 경우는 주중 또는 휴일만 거주하는 형태가 10.0%나 되어 세컨드하우스의 거주유형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귀촌 이전에 거주하였던 거주지에 관하여 일반마을의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73.2%)으로부터 이주해 왔으나, 전원주거단지의 경우는 수도권(58.0%)뿐만 아니라 충남(29.5%)에서도 상당수가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 및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보다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7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현황

구분		전체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χ^2 (p-value)
거주자수	1인	53(11.8)	52(20.8)	1(0.5)	73.054 (0.000***)
	2인	291(64.7)	164(65.6)	127(63.5)	
	3인	44(9.8)	17(6.8)	27(13.5)	
	4인	58(12.9)	13(5.2)	45(22.5)	
	5인 이상	4(0.9)	4(1.6)	0(0.0)	
거주형태	자가	376(83.6)	181(72.4)	195(97.5)	51.160 (0.000***)
	임대(전세)	64(14.2)	59(23.6)	5(2.5)	
	임대(월세)	7(1.6)	7(2.8)	0(0.0)	
	기타	3(0.7)	3(1.2)	0(0.0)	
거주유형	상시거주	424(94.2)	244(97.6)	180(90.0)	12.507 (0.002**)
	주중거주	5(1.1)	2(0.8)	3(1.5)	
	휴일거주	21(4.7)	4(1.6)	17(8.5)	
前거주지	충남	89(19.8)	30(12.0)	59(29.5)	28.428 (0.000***)
	대전	53(11.8)	28(11.2)	25(12.5)	
	수도권	299(66.4)	183(73.2)	116(58.0)	
	기타	9(2.0)	9(3.6)	0(0.0)	
주거환경 만족도			3.58	3.77	t=-3.296 (0.001**)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있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기간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단지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의 경우 직업별로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이나 무직자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에게서 차이를 보였던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일반마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①

구분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성별	남성	3.58	3.79	t=0.238
	여성	3.55	3.74	(0.812)
연령	31-40세	3.67	3.80	1.500 (0.203)
	41-50세	3.57	3.68	
	51-60세	3.46	3.79	
	61-70세	3.67	3.79	
	71세 이상	3.75	-	
직업	농수축산업	3.60	3.50	2.236 (0.040*)
	회사원	2.91	3.63	
	자영업	3.65	3.83	
	전업주부	3.33	3.72	
	자유업	3.50	3.80	
	무직	3.65	3.79	
	기타	4.00	3.89	
학력	중졸 이하	3.66	3.75	.991 (0.398)
	고졸	3.53	3.67	
	대학원졸 이상	3.68	3.86	
거주기간	1년 미만	3.53	3.95	1.275 (0.284)
	1-3년	3.48	3.86	
	4-6년	3.64	3.64	
	7-9년	3.70	3.58	
	10년 이상	-	3.44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한편, 거주자수나 거주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에게서 차이를 보였던 前거주지에 있어서는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에게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형태에 따라서 일반마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임대보다는 자가형태에 있어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9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②

구분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거주자수	1인	3.42	3.00	1.644 (0.180)
	2인	3.62	3.83	
	3인	3.47	3.89	
	4인	3.62	3.69	
	5인 이상	4.00	-	
거주형태	자가	3.69	3.82	2.662 (0.104)
	임대(전세)	3.31	3.40	
	임대(월세)	3.00	-	
	기타	3.33	-	
거주유형	상시거주	3.58	3.82	0.838 (0.434)
	주중거주	2.50	3.67	
	휴일거주	3.75	3.65	
前거주지	충남	3.53	3.56	10.530 (0.000***)
	대전	3.39	3.72	
	수도권	3.62	3.95	
	기타	3.29	-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3. 경제활동 현황 및 만족도

귀농·귀촌인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마을의 경우 이주 후 대부분 이직하거나 직종을 변경(73.2%)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전원주거단지는 무직 또는 퇴직(530.0%)하였거나 이주전과 동일한 직장(44.0%)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마을은 귀농을 목적으로 대부분 이주전의 직업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전원주거단지는 퇴직을 한 후 이주하거나 기존의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직장소재지는 일반마을은 동일 시·군 지역내(80.4%), 전원주거단지는 무직(57.0%) 이외에는 동일 시·군, 대전, 충남, 타 시도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주 소득원으로는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일반마을은 과반수 이상이 농업소득에 의존(62.8%)하는 반면 전원주거단지는 농외소득(53.0%)과 연금, 저축 등(41.5%)에 의존하고 있어 귀농이 아닌 귀촌을 주목적으로 이주하였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였다.

소비활동에 있어서는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생필품 구입은 주로 인근 읍·면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문화활동 및 기타 소비활동은 인근 읍·면소재지 및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10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현황

구분	전체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χ^2 (p-value)	
이직	무직·퇴직	140(31.1)	34(13.6)	106(53.0)	225.013 (0.000***)
	이주전과동일	121(26.9)	33(13.2)	88(44.0)	
	이주후이직	189(42.0)	183(73.2)	6(3.0)	
직장소재	무직	152(33.8)	38(15.2)	114(57.0)	172.840 (0.000***)
	동일시군	238(52.9)	201(80.4)	37(18.5)	
	대전, 충남	38(8.4)	9(3.6)	29(14.5)	
	타 시도	22(4.9)	2(0.8)	20(10.0)	
주소득원	가족보조	14(3.1)	9(3.6)	5(2.5)	194.024 (0.000***)
	농업소득	162(36.0)	157(62.8)	5(2.5)	
	농외소득	139(30.9)	33(13.2)	106(53.0)	
	연금, 저축	129(28.7)	46(18.4)	83(41.5)	
	소득원없음	6(1.3)	5(2.0)	1(0.5)	
생필품구입	마을내	9(2.0)	5(2.0)	4(2.0)	40.927 (0.000***)
	인근마을	32(7.1)	4(1.6)	28(14.0)	
	읍면소재지	369(82.0)	229(91.6)	140(70.0)	
	주변대도시	40(8.9)	12(4.8)	28(14.0)	
문화소비	마을내	2(0.4)	2(0.8)	0(0.0)	2.437 (0.487)
	인근마을	1(0.2)	1(0.4)	0(0.0)	
	읍면소재지	345(76.7)	190(76.0)	155(77.5)	
	주변대도시	102(22.7)	57(22.8)	45(22.5)	
경제활동 만족도			3.05	3.19	t=-1.963 (0.050)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만족도에 있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이직여부, 주소득원, 생필품구입처 및 문화소비처 등과도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단, 직장소재지에 있어 일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전·충남의 경우가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11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만족도 ①

구분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성별	남성	3.05	t=-0.223	3.21	t=0.817
	여성	3.08	(0.824)	3.14	(0.415)
연령	31-40세	3.17	0.088 (0.545)	3.12	2.115 (0.100)
	41-50세	3.03		3.11	
	51-60세	3.08		3.11	
	61-70세	3.05		3.33	
	71세 이상	3.00		-	
직업	농수축산업	3.09	0.833 (0.545)	3.50	1.585 (0.142)
	회사원	3.18		3.04	
	자영업	2.94		3.13	
	전업주부	2.33		3.05	
	자유업	2.50		2.80	
	무직	2.94		3.29	
	기타	3.00		3.29	
학력	중졸 이하	2.88	1.537 (0.206)	2.75	2.475 (0.063)
	고졸	3.04		3.16	
	대졸	3.25		3.17	
	대학원졸 이상	3.00		3.50	
거주기간	1년 미만	3.24	1.996 (0.115)	3.16	0.158 (0.959)
	1-3년	3.05		3.21	
	4-6년	2.96		3.16	
	7-9년	3.40		3.17	
	10년 이상	-		3.12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Table 12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만족도 ②

구분	일반마을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이직	무직·퇴직	2.88	2.399 (0.093)	3.21	0.415 (0.661)
	이주전과동일	3.30		3.17	
	이주후이직	3.04		3.00	
직장소재	무직	2.84	3.009 (0.031 ¹)	3.21	0.537 (0.658)
	동일시군	3.07		3.22	
	대전, 충남	3.67		3.14	
	타 시도	2.50		3.05	
주소득원	가족보조	3.11	1.631 (0.167)	2.60	2.109 (0.081)
	농업소득	3.10		3.00	
	농외소득	3.06		3.15	
	연금, 저축	2.98		3.28	
	소득원없음	2.20		3.00	
생활필품구입	마을내	3.00	0.433 (0.730)	3.00	1.111 (0.346)
	인근마을	3.50		3.07	
	읍면소재지	3.05		3.19	
	주변대도시	3.00		3.00	
문화소비	마을내	3.00	0.004 (1.000)	-	3.494 (0.063)
	인근마을	3.00		-	
	읍면소재지	3.05		3.23	
	주변대도시	3.05		3.04	

* p<.05, ** p<.01, *** p<.001

* 전원주거단지 만족도 분석자료 : 조영재 등(2012) 인용

V.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실태

1. 커뮤니티 활동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당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마을 리더(60.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마을 주민(27.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마을 내·외부의 귀농·귀촌인에게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현재 마을 내에서의 역할은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범한 일반주민으로 살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향후 이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주 의향을 보인 이유로는 경제적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자아실현의 기회부족,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 등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원주민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37.3%)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구 유치를 위해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한다(30.8%)는 의견이 많았다.

Table 13 귀농·귀촌인의 역할 및 원주민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현황		빈도	비율 (%)
정착시 도움을 준 사람	없었음	6	2.4
	마을 주민	68	27.2
	마을 리더	152	60.8
마을내 역할	마을내 귀농·귀촌인	19	7.6
	마을외 귀농·귀촌인	5	2.0
	추진위원(장)	1	0.4
향후 이주 의향	청년회장	1	0.4
	새마을지도자	2	0.8
	일반주민	244	97.6
	기타	2	0.8
이주 이유	있음	14	5.6
	없음	225	90.0
	잘 모르겠음	11	4.4
원주민에게 바라는 점*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8	42.1
	열악한 교육, 문화, 생활환경	3	15.8
	자아실현의 기회 부족	5	26.3
원주민에게 바라는 점*	마을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3	15.8
	이주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존중	46	13.1
	인구유치 위한 개방적 사고	108	30.8
원주민에게 바라는 점*	귀농·귀촌인 유치 위한 적극적 대응	131	37.3
	귀농·귀촌인 정착 위한 도움	66	18.8

* 복수응답 문항

한편,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극소수의 부정적인 인식도 보였다.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에게 바라는 점

으로는 기존 주민들과 좀 더 잘 어울렸으면 한다(59.8%)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마을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29.3%)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 14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의식

커뮤니티 현황		빈도	비율 (%)
이주민에 대한 인식	매우 부정적인 존재임	1	1.1
	약간 부정적인 존재임	3	3.3
	보통임	49	53.3
	약간 중요한 존재임	36	39.1
이주민에게 바라는 점	매우 중요한 존재임	3	3.3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함	10	10.9
	원주민들과 좀 더 잘 어울렸으면 함	55	59.8
	마을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함	27	29.3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관계에 있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관계변화 역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교류활동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또는 전체 주민과의 주민과 모임이나 교류활동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계의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대다수가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들었다.

Table 15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구분	이주민 (귀농·귀촌인)	원주민	χ^2 (p-value)
현재관계	매우 비우호적	0(0.0)	0(0.0)
	비우호적	9(3.6)	8(8.7)
	보통	46(18.4)	22(23.9)
	우호적	183(73.2)	59(64.1)
관계변화	매우 우호적	12(4.8)	3(3.3)
	비우호적 변화	1(0.4)	3(3.3)
	변화 없음	51(20.4)	21(22.8)
	우호적 변화	198(79.2)	68(73.9)
교류활동	교류활동 전혀없음	7(2.8)	3(3.3)
	일부 소규모 교류활동	79(31.6)	33(35.9)
	전체 소규모 교류활동	147(58.8)	44(47.8)
	전체 활발한 교류활동	17(6.8)	12(13.0)
관계어려움*	생활양식의 차이	82(25.9)	46(37.7)
	사고방식의 차이	147(46.4)	49(40.2)
	폐쇄적인 태도	47(14.8)	13(10.7)
	관계형성 기회부족	41(12.9)	14(11.5)

* 복수응답 문항 / * p<.05, ** p<.01, *** p<.001

2. 커뮤니티 의식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원주민이 귀농·귀촌인에 대해 느끼는 태도에 비해 귀농·귀촌인이 원주민에 대해 느끼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6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구분	이주민 (귀농·귀촌인)	원주민	χ^2 (p-value)
이주민에 대한 태도	매우 부정적	1(0.4)	0(0.0)
	부정적	3(1.2)	2(2.2)
	보통	63(25.2)	12(13.0)
	긍정적	174(69.6)	67(72.8)
귀농·귀촌인의 영향	매우 긍정적	9(3.6)	11(12.0)
	매우 부정적	0(0.0)	0(0.0)
	부정적	6(2.4)	2(2.2)
	보통	28(11.2)	14(15.2)
	긍정적	198(79.2)	68(73.9)
	매우 긍정적	18(7.2)	8(8.7)
커뮤니티 변화 의식	기존 커뮤니티 유지 및 고수	0(0.0)	8(8.7)
	새로운 커뮤니티로 부분적 변화 필요	126(50.4)	37(40.2)
	새로운 커뮤니티로 적극적 변화 필요	97(38.8)	37(40.2)
	새로운 커뮤니티로 전면적 변화 필요	27(10.8)	10(10.9)

* p<.05, ** p<.01, *** p<.001

즉, 귀농·귀촌인이 실제 원주민에 대한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주민태도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이유로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유발, 농촌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을 들었다.

커뮤니티 변화에 대한 의식으로는 대부분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티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원주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농촌마을의 커뮤니티를 유지·고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3. 커뮤니티 만족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만족도를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귀농·귀촌인은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고, 원주민은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7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 ①

구분	이주민 (귀농·귀촌인)		원주민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성별	남성	3.53	3.51	t=-1.229
	여성	3.37	4.00	(0.222)
연령	31-40세	3.33	-	1.466 (0.229)
	41-50세	3.51	4.33	
	51-60세	3.44	3.50	
	61-70세	3.54	3.49	
	71세 이상	3.65	3.50	
직업	농수축산업	3.49	-	모두 농수축산 업에 종사
	회사원	3.73	-	
	자영업	3.59	-	
	전업주부	2.67	-	
	자유업	4.00	-	
	무직	3.48	-	
학력	중졸 이하	3.22	3.44	1.265 (0.287)
	고졸	3.56	3.58	
	대졸	3.55	3.00	
	대학원졸 이상	3.67	-	
거주기간	1년 미만	3.53	-	모두 10년 이상 거주
	1-3년	3.48	-	
	4-6년	3.64	-	
	7-9년	3.70	-	
	10년 이상	-	-	

* p<.05, ** p<.01, *** p<.001

연령별로는 귀농·귀촌인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원주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자유업 등에서 커뮤니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귀농·귀촌인의 학력과 거주기간에 따라 커뮤니티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귀농·귀촌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원주민은 고졸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현재 관계가 귀농·귀촌인의 경우 커뮤니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주민의 경우는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관계 변화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경우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8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 ②

구분	이주민 (귀농·귀촌인)		원주민	
	만족도	F-값 (p-value)	만족도	F-값 (p-value)
현재관계	매우 비우호적	-	-	23.024 (0.000***)
	비우호적	3.22	2.38	
	보통	3.41	3.23	
	우호적	3.52	3.73	
관계변화	매우 우호적	3.83	4.67	6.081 (0.003**)
	비우호적 변화	4.00	3.00	
	변화 없음	3.51	3.14	
교류활동	우호적 변화	3.50	3.66	9.080 (0.000***)
	교류활동 전혀없음	3.14	2.33	
	일부 소규모 교류활동	3.25	3.24	
	전체 소규모 교류활동	3.61	3.80	
	전체 활발한 교류활동	3.94	3.58	
이주민에 대한 주민 태도	매우 부정적	3.00	-	4.141 (0.009**)
	부정적	3.67	2.50	
	보통	3.49	3.17	
	긍정적	3.48	3.55	
귀농 귀촌 의 영향	매우 긍정적	4.00	3.91	5.166 (0.002**)
	부정적	3.83	2.50	
	보통	3.46	3.07	
	긍정적	3.46	3.66	
	매우 긍정적	3.89	3.38	

* p<.05, ** p<.01, *** p<.001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교류활동에 있어서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서로 활발한 교류활동이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원주민과의 관계변화나 이주민에 대한 주민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원주민의 경우는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수록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과 커뮤니티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귀농·귀촌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

반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행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전원주거단지로의 귀농·귀촌인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배경으로는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는 주로 귀촌, 건강관리가 목적인 것에 비해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선정 요인에 있어서도 자연경관이나 주거환경, 접근성 외에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는 커뮤니티환경이나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안전 및 편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대부분 2인 가정이 많았으나, 이 외에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는 3~4인 가정이,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독인가정이 많았다. 거주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전원주거단지는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일부 임대(전세)의 형태도 보였으며, 거주유형도 상시거주 이외에 전원주거단지는 휴일거주 형태를 보이는 반면 일반마을 이주자는 대다수가 상시거주의 형태를 보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귀농·귀촌인 대다수가 만족 또는 보통의 의견을 보였으나, 일반마을로의 이주자 만족도가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는 대부분 퇴직하였거나 이주전과 동일한 직장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이주 후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원주거단지 이주자는 농외소득이나 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대부분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적 활동 만족도는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결과와 달리 일반마을로의 이주자 만족도가 전원주거단지로의 이주자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인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일반주민으로 살아하고 있으며, 정착시 마을리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향후 이주 의향이 없었으나, 일부 이주 의향을 보인 이유로는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을 가장 호소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자아실현의 기회부족,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 등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원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경우 원주민과의 관계나 원주민의 태도가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원주민과의 교류활동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원주민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인 보다 관계형성이나 의식정도에 따라 커뮤니티 활동의 만족도가 민감하게 나타났다. 즉, 귀농·귀촌인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교류활동이 많을수록, 귀농·귀촌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곧 일반마을에 귀농·귀촌인이 이주해 왔을 경우 귀농·귀촌인이 원주민을 의식하는 정도보다는 원주민이 귀농·귀촌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의 차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있어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일반마을로 이주한 자와 귀촌을 목적으로 전원주거단지 등으로 이주한 자는 농촌이주의 목적과 지향하는바 등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원주민과의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마을에서는 대부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의견으로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주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향후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대응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마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귀농·귀촌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주민의 의식변화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2012년도 기본연구과제에 의해 수행된 것임.

참고문헌

1. 강대구, 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743-771.
2. 김정섭, 김광수, 2011,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남인현, 하규수, 2011, 직장인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52권 제3호, 93-124.
4. 박공주, 김양희, 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5. 박공주, 윤순덕,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6. 오수호,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101-117.
7. 이민수,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8.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551-565.
9. 임춘희, 2012, 비은퇴자 귀농가족의 가족 강점과 귀농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4호, 201-232.
10. 조영재, 조은정, 2012, 농촌지역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및 입주자 만족도 분석: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일반전원주거단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8(2), 13-26.
11. 최윤지, 황정임, 한송희, 2012, 도시 이주민의 농촌지역커뮤니티 적응 실태,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1호, 29-4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전망 2011.
13. 황정임, 최윤지, 조현민, 윤순덕, 2011, 농촌 이주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제18권 4호 (2011), 729-764.
14. 홍성효, 송정기, 김종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 진안군의 사례, 농촌사회, 제22집 2호, 49-82.

접 수 일: (2013년 11월 5일)

수 정 일: (1차: 2013년 11월 15일, 2차: 12월 2일)

계재확정일: (2013년 12월 2일)

■ 3인 익명 심사필